

김해,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선다

2018 독서대전 성료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 '박차' 연중·본행사 나눠 독창성 가득 다양 프로그램 마련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시가 차별화된 독서대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일, 개최지로 선정된 이래 4월 16일, 2016 ~ 2017 퍼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역임한 이근욱 (현)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 입학교수를 독서대전 총감독직으로 선임한 김해시는 4월 20일엔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지난달 15일엔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체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종합행정지원협의회도 이르르면 이달 말부터 구상해 독서대전의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독서대전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행사 전략 등을 두루 담아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본계획'도 이달 말 공개된다.

김해시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낸 독서대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서대전의 붐업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해시는 이번 독서대전의 슬로건을 '#함께 읽을래?'로 정했다. SNS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반영된 '#함께 읽을래?'는 거창하고 딱딱한 시선에서 탈피한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돋보인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2018 책의 해' 슬로건인 '#무슨 책 읽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계 책의 날 행사 및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홍보 부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SNS 및 블로그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돼 축제 관련 전반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시는 독서대전 본행사에 앞서 연중 독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민의 추천으로 선정된 100권의 그림책으로 전국민 대상 독서릴레이를 펼치는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동네책방과 독립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책방&독립서점 작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 '김해시 올해의 책 가족극 공연' 같은 프로그램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엔 시민단체, 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기원 집담회'를 개최, 독서대전의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김해시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일간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본행사는 이번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



지난 4월 20일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선포식

이다.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본행사는 크게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3가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연행사는 전국최대규모의 '남독공연대회', 낭독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 등으로 꾸며져 구비문학의 본고장인 김해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단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컨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 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국출판사 부스, 독립서점 연합부스, 1인 출판사 연합부스를 총망라한 '북페어', '수요이야기 책방',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같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유치를 위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특색 있는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며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복기자 kb@gnynews.co.kr

뉴스

김해시,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개최 범시민협의회 구성

8월 31일~9월 2일 3일간 가야의 거리 개최



【김해=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8월 열리는 대

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시민 종합행정지원협의회 등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독서대전 총괄감독에 2016~2017 파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지낸 이근욱 (현)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선임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지난달 15일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각각 열었다.

또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종합행정지원협의회를 이달 구성하는 등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독서대전은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해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을 진행한다.

공연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낭독공연대회', 낭독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단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콘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 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가야 왕도 김해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 대한민국 독서대전, 어디까지 와 있나?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 박차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선포식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 독서대

전'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시가 차별화된 독서대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일, 개최지로 선정된 이래 4월 16일, 2016 ~ 2017 과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역임한 이근욱 (현)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를 독서대전 총괄감독으로 선임한 김해시는 4월 20일엔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지난달 15일엔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행정지원협의회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성해 독서대전의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독서대전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행사전략 등을 두루 담아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본계획'도 이달 말 공개된다. 김해시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낸 독서대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서대전의 범업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해시는 이번 독서대전의 슬로건을 '#함께 읽을래?'로 정했다. SNS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반영된 '#함께 읽을래?'는 거창하고 딱딱한 시선에서 탈피한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돋보인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2018 책의 해' 슬로건인 '#무슨 책 읽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계 책의 날 행사 및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홍보 부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SNS 및 블로그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31일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축제 관련 전반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시는 독서대전 본행사에 앞서 연중 독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민의 추천으로 선정한 100권의 그림책을 전국민 대상 독서텔레비를 펼치는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동네책방과 독립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책방&독립서점 작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 '김해시 올해의 책 가족극 공연'같은 프로그램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엔 시민단체, 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기원 집담회'를 개최 독서대전의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김해시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본행사는 이번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다.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본행사는 크게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3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연행사는 전국최대규모의 '낭독공연대회', 낭독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등으로 꾸며져 구비문학의 본고장인 김해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담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컨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국출판사 부스, 독립서점 연합부스, 1인 출판사 연합부스를 총망라한 '북페어', '수요이야기 책방',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같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유치를 위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특색 있는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며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해인터넷뉴스

김해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마스터플랜 구상 몰두

사전 준비 및 홍보 강화로 독서대전 붐업 조성, 연중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마련



김해시가 지난 4월 20일에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시가 차별화된 독서대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일, 개최지로 선정된 이래 4월 16일 2016~2017 과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역임한 이근욱 (현)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를 독서대전 총괄감독으로 선임한 김해시는 4월 20일엔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지난달 15일엔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체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행정지원 협의회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성해 독서대전의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독서대전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행사전략 등을 두루 담아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본계획'도 이달 말 공개된다. 김해시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낸 독서대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서대전의 붐업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해시는 이번 독서대전의 슬로건을 '#함께 읽을래?'로 정했다. SNS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반영된 '#함께 읽을래?'는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돋보인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2018 책의 해' 슬로건인 '#무슨 책 읽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계 책의 날 행사 및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홍보부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SNS 및 블로그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축제 관련 전반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김해시는 독서대전 본행사에 앞서 연중 독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민의 추천으로 선정된 100권의 그림책으로 전국민 대상 독서릴레이를 펼치는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동네책방과 독립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책방&독립서점 작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붐시 작가', '김해시 올해의 책 가족극 공연'같은 프로그램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엔 시민단체, 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기원 집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본행사는 이번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다.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본행사는 크게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3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연행사는 전국최대규모의 '낭독공연대회', 낭독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등으로 꾸며져 구비문화의 본고장인 김해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단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컨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 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국출판사 부스, 독립서점 연합부스, 1인 출판사 연합부스를 총망라한 '북페어', '수요이야기 책방',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같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유치를 위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특색 있는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며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김해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 마스터플랜 마련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시가 차별화된 독서대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에 여념이 없다.

지난 2월 2일, 개최지로 선정된 이래 4월 16일, 2016 ~ 2017 파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역임한 이근욱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를 독서대전 총괄감독으로 선임한 김해시는 4월 20일엔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지난달 15일엔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체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행정지원협의회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성해 독서대전의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독서대전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행사전략 등을 두루 담아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본계획'도 이달 말 공개된다.

김해시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낸 독서대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서대전의 불업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해시는 이번 독서대전의 슬로건을 '#함께 읽을래?'로 정했다. SNS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반영된 '#함께 읽을래?'는 거창하고 딱딱한 시선에서 탈피한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돋보인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2018 책의 해' 슬로건인 '#무슨 책 읽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계 책의 날 행사 및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홍보 부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SNS 및 블로그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축제 관련 전반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시는 독서대전 본행사에 앞서 연중 독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민의 추천으로 선정한 100권의 그림책으로 전국민 대상 독서릴레이를 펼치는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동네책방과 독립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책방&독립서점 작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 '김해시 올해의 책 가족극 공연'같은 프로그램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 시민단체, 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기원 집담회'를 개최해 독서대전의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김해시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본행사는 이번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다.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본행사는 크게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3가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연행사는 전국최대규모의 '낭독공연대회', 낭독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등으로 꾸며져 구비문화의 본고장인 김해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단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컨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국출판사 부스, 독립서점 연합부스, 1인 출판사 연합부스를 총망라한 '북페어', '수요이야기 책방',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같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유치를 위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특색 있는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며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해=강종효 기자